

## C-8. 치조제 결손부 치료에의 GBM(Gelatinized Bone Matrix)와 DLB (Human Skull Demineralized Lyophilized Bone Powder)의 임상적용 사례

김윤상\*,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조제 결손부위에 자가골, 합성골, 동종골 등의 여러 골 이식재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골이식을 하는데 골 결손부위에 bone powder를 사용하고 GBR을 위해서는 차폐막을 사용하게 된다. 이 차폐막은 보통 흡수성 막을 사용하는데 한국조직은행에서 나온 GBM은 늑골에서 monocortical strip 형태로 채취된 것으로 자체를 골 이식재로 사용될 뿐 아니라 외측은 매끄러워 차폐막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내측은 cancellous 면으로서 골 이식재를 보호하고 여러 성장인자를 응집시킬 수 있으며 수화되면서 젤라틴화 되어 치조골과 치주조직에 적합성이 우수하고 봉합이 필요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조직을 기증받아 사용되므로 단일민족에 따른 면역 체계의 안정성과 기증자의 역추적 조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원광대학병원 치주과에서 2001년 8월부터 이식재료로서 적용한 수술 과정과 재료를 소개하는 임상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